



# ‘우문우답’을 ‘현문현답’으로 만들어내야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해인총림 방장

법안문의(法眼文臺) 선사에게 각(覺) 상좌(上座)가 찾아왔 습니다.

“배로 왔는가? 걸어왔는가?”  
“배로 왔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는가?”  
“배는 강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자 선사께서 곁에 있던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각 상좌가 제대로 안목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네가 말해보거라.”

오늘은 하안거 한철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해

제날입니다. 이제 모두가 만행길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길을 걸어서 선지식을 참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화두의 주인공인 법안문의 선사는 장경혜릉(長慶慧陵)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나한계집(羅漢桂集) 선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장경혜릉과 나한계집은 모두 설봉의존 선사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법안 역시 설봉가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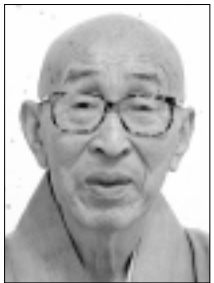
해제는 그냥 해제가 아닙니다.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해제 때는 제방의 선지식과 도반들을 두루 참방하면서 자기공부를 더욱 탁마하는 기간입니다. 명칭하게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있는 생재기에 걸려 자빠질 일 뿐입니다. 걸어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풍동이 삼십 방 아니면 귀가 멀어질 만큼 꾸중하는 고향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지식의 물음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한마디 한마디가 공부 길을 묻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선지식은 속박의 거사처럼 일

수도 있고 재가보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분자리에서 보면 배로 왔던지 걸어왔던지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적인 질문마저도 어떻게 보면 묻는 자의 분별의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드는 남자는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선지식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편이 방편인 줄 모르고, 또 묻는 낙처를 제대로 모르면 선문답은 그야말로 우문우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문은 현문이 됩니다. 또 우답은 현답이 됩니다. 우문우답을 현문현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불세수(水不洗水)하고  
금불역금(金不易金)이로다  
물로는 물을 씻지 못하고  
금으로는 금을 바꾸지 못한다.

## “달빛을 어떻게 얻어 잡을 것인가”



지중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백로입설(白鶴立雪)이요 명월로화(明月蘆花)라  
필경여하(畢竟如何) 심광(心光)을 활득(獲)하  
거운문(擧雲門)이 수어운(垂語云)  
인인(人人)이 진유광명재(盡有光明)나 간시불견암혼  
(看時不見暗昏昏)이나라.  
작마생(作麼生)이 시제인광명(是諸人光明)고  
자대운(自代云)  
주고삼문(擧庫三門)이나라  
우운(又云) 호사(好事)도 불어무(不如無)나라 하니,  
종사만물명지소(宗師慢物明羅素)하니 북지장하철저  
훈(北地長河徹底瀦)이로다.  
설두승운(雪頭승운) 자조열고명(自照列孤明)하야 위군

통입선(爲君通一線)이로다.

화사무영(花謝無影)하니 간시수불견(看時誰不見)고 견불견(見不見)이라.

도기우해입불진(倒騎牛兮入佛殿)이도다 하니,

한암이초(寒岩異草)에 좌착성공(坐着成功)이요 명월백운(明月白雲)이 보시분영  
(步時分影)이로다.

필경자마(畢竟作麼)오 유동(幽洞)이 불구관쇄의(不拘關鎖意)라 종횡나섭(縱橫那涉)  
양두인(兩頭人)이리오.  
할(暢)!

흰 해오리는 눈 위에 섰고 밝은 달에 갈대꽃이 나부끼도다.  
필경 어쩌하고 달빛을 어떻게 얻어 잡을 것인가.

운문 스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사람이 모두 광명이 있으나 보려고 할 때에는 보지 못하고 어두우니라.”

어떤 것이 이 모든 사람의 광명이고  
스스로 가름하여 이르되,  
“부엌 고집과 삼문이나라.”

(중략)

## “큰 용맹심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어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오늘이 해제일이라 하는데 어느 때 결제를 했기에 오늘 해제라 합니까?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한결같은 산철벽을 타파해서 부처가 되려고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선불장(選佛場)입니다.

날짜로 해제, 결제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처를 보기 위해 입정(入定)하는 것이 결제요 부처를 보고서 출정(出定)하는 것이 해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미진한 사람은 은산철벽이 나타날 때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철벽을 타파하려는 사람이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고서 어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한걸음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정부의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맹심을 내어서 물러서지 말아야지요.

이 자리의 대중들은 능히 그때를 당해서 과감히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대장부라고 자부합니다. 고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척간두불동인(百尺竿頭不動人)  
수언득인미위진(雖然得入未爲眞)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시전신(十方世界是全身)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 참 경지는 못되도다.

백척의 장대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시방세계가 온몸이로다.

이 말은 들어오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사해탈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까마득한 절벽 끝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생사해탈과는 요원한 것입니다.

(중략)

## “시비는 무슨 헛개비 빈소리이고”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세월이 유수하여 하안거 결제를 한지가 옛것과 같은데 벌써 해제일입니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畫師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환쟁이 같아서 수행자는 마음속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도(道)가 달라집니다.

수행자 여러분은 지난 결제기간동안 무슨 그림을 그렸습니까?

하나 마음속 그림 역시 모두 허상(虛像)이며 수행이란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그려진 찌들고 낡은 왜곡된 허상을 모두 없애 버리는 작업이지요.

나는 신중에만 살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은 모르지만 요즈음 세상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패권(霸權)을 꿈꾸며, 공존(共存)의 보편적 법칙(法則)을 망각한 채 세상을 지배(支配)하고자 겁 없이 날뛰는 사람들이 많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여 호의호식(好衣好食)하려는 그릇된 욕망에 빠져 있는 범부중생(凡夫衆生)들이 서로 뒤엉켜 투쟁과 갈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성(神聖)하고 존엄(尊嚴)하여 세속적 가치(價値)에 초연(超然)해야 할 종교교지도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 남자(衲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자는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이 모두 수행이요, 수행은 때를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제(結制) 해제(解制)를 따로 구분해야 할 일은 아니라 구태어 나누어 생각해 보면 결제는 산사(山寺)에 들어 앉아 도(道)를 익히는 기간이라면 해제는 그 동안 익히고 배운 도를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이 머무는 정사(精舍)를 산속 외딴곳에 짓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마을 가운데(변두리 지역)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교가 자기수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생제도를 위한 보살행에 더욱 역점을 두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부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목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중략)

고금대교개통 축원과 新해양시대를 기원하는

# 완도청정해역, 푸른바다(청해)를 위한 축제



- ◆일 시 : 2007년 10월 13일 (土) 오전 11시 ~ 오후 5시
-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특설무대
- ◆문의전화 : 완도 신흥사 061)554-2634, 수향사 061)553-0990 / 011-9616-1303
- ◆행사내용
  1. 푸른 바다를 위한 기도 - 수륙대재(水陸大齋)
  2. 푸른 바다를 위한 공연 - 축하공연
  3. 푸른 바다를 위한 소원 - 기원등 밝히기
  4. 생명사랑의 실천 - 방생

외로운 섬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안과 남해의 섬들을 잇는 대교개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남 완도군 고금대교가 공사착공 8년만인 2007. 6. 29(금)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는 비단 고금면민들 뿐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군의 얼마전 신지대교 개통에 이은 또 하나 도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는 완도군내의 바다와 육지의 주민들과 생명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수륙대재를 봉행하려 한다.

- ◎ 주최 : 전남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 ◎ 주관 : 고금 수향사, 수효사, 약산 황룡사, 해동사
- ◎ 후원 : 완도군,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완도군 고금면 지역발전협의회, 완도군 약산면 번영회, 완도군 고금·약산면 청년회, 완도군 고금·약산면 어류양식협회, BBS광주불교방송